

# 교육발전특구 추진 긴밀 협력

### 군산시, 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 돌봄·배움·취업이음 등 4대 전략 마련

군산시와 군산교육지원청은 3일 교육발전특구 추진 기관 간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군산시를 비롯해 군산교육지원청, 4개 지역대학, 교강단협의회, 고등학교, 대안학교, 산단협의회 연구소 등 19개 협력기관이 참여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 교육을 혁신,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 정주까지 지원해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군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해 적극 힘

을 모으기로 했으며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공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군산만의 특색있는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각계 전문가와 교사, 학부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공모추진단을 운영하며 추진전략을 마련해왔다.

이외에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든든한 돌봄, 쟁쟁한 배움, 촘촘한 취업이음, 탄탄한 어울림의 4대 전략을 정하고, 12대 세부과제를 공모 기획서에 반영했다.

돌봄분야에는 늘봄시설의 다양화, 다채로운 늘봄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방학중 점심지원이 담겼으며, 배움분야에는 대상별 지역여건특화, 자율형

공립고 과학문화융합 교육과정 운영을 세부과제로 정했다.

취업이음분야로는 진로진학정보플랫폼인 꿈이음센터 조성 및 일반고 직업교육학급운영을 담고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지향했다. 마지막으로 어울림 분야에선 다문화위탁교육기관 확대와 다문화도서관, 장애학생 직업체험 인턴십 사업이 담겨있다.

군산시는 이를 통해 돌봄부터 지역 정주까지 지역책임교육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강민준 군산시장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인재들이 지역에 터전을 잡고 삶을 정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의 문화유산을 실감나는 문화콘텐츠로 경험하는 이리열차타고 익산행이 전국의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이리열차타고 익산행’ 인기

### 역사투어·이리열차퀘스트투어 등 역사·교육·문화 여행

익산시의 문화유산을 실감나는 문화콘텐츠로 경험하는 이리열차타고 익산행이 전국의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리열차타고 익산행은 지난달까지 진행된 네 번의 프로그램이 모두 조기 매진되는 인기와 함께 전국에서 2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리열차타고 익산행’은 국가유산청이 공모하는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생생 국가유산사업 분야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시작해 11월까지 총 13회를 진행한다.

‘생생 국가유산사업’은 지역 문화유산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고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생생 국가유산사업 ‘이리열차타고 익산행’은 철도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픔을 간직하고 그대로 보존

돼 있는 익산의 이야기를 이리열차에 담아 역사·교육·문화 체험 여행을 선보이고 있다.

프로그램은 1박 2일 일정인 ‘이리열차타고 익산행’과 당일체험 ‘기차마을에서 찾은 이리의 향기’, ‘레트로 감성 영정봉거리’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된 근대역사의 재미를 다양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익산 스텔라근대역사문화공간과 익산역 일원을 거닐며 역사투어, 버스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시대 의상을 입고 추억의 상점점프기도 해 볼 수 있다.

스텔라근대역사문화공간과 구)삼산의원, 구)춘포역사에서 펼쳐지는 이리열차퀘스트투어는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이리열차퀘스트투어는 임무를 수행하며 독립운동과 익산 근대역사의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내는 체험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 ‘민생은 안정, 경제는 도약’ 익산시, 1조8000억 추경안 편성

### 본예산 대비 826억원 증액된 1조8309억원 편성

익산시가 올해 첫 추경예산을 1조 8,309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3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익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인 1조 7,482억원보다 826억원(4.7%) 증액된 1조 8,309억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가 본예산 대비 732억원(4.5%) 늘어난 1조 6,83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4억원(6.8%) 증가한 1,476억원이다.

시는 장기화되는 경기 불황에 따른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해 민생 안정을 이루고 더 나아가 지역 산업 경제 데드와이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실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신산업

혁신성장의 기반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사업 11억원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6억원 △ 첨단 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 10억원을 편성했다.

또 고물가 시대 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익산시방상품권 할인 판매 보전금 69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7억원 △전북 익산형 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6억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사업 2억원을 편성했다.

활기찬 도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9억원 △청년·신혼부부 주택구입 자

금 대출이자 지원 5억원 △슬기로운 동네생활 조성 6억원 △다우리 신축 이전 경비 4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2억원 등이 예산안에 담겼다.

재난 재해에 대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마련됐다.

시는 △관문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4억원 △석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3억원 등을 예산안에 포함했다.

이 밖에도 △금마 관광지 맨발 걷기 좋은 길 조성 5억원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 10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10억원 등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그레이트(Great) 익산을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담겼다.

【익산=이재훈 기자

## 정현울 익산시장, “안전한 여름나기 미리 준비” 강조

정현울 익산시장이 장마 대비 시설물 점검과 해충 방역 등 안전한 여름나기를 미리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정현울 시장은 3일 간부회의에서 “가래로 막아야 할 일이라도 미리 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다”며 “본격적인 장마에 앞서 하수구 낙엽 제거와 배수 시설물 점검 등 미리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모기 등 해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더운 여름에 시민들이 모기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취약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역을 꼼꼼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난 2~5월 불철 산불조심 기간을 큰 사고 없이 지난 것에 대해 산불방지대책본부 등 관련 부서 직원들에 감사함을 전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산방기 신속 집행에 대한 복려도 나

왔다. 정 시장은 “벌써 올해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됐다”며 “앞서 준비한 대로 지역업체가 실질적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상반기 신속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신속 집행 관리대상 8,697억 원 중 60%에 해당하는 5,219억 원을 상반기 내로 집행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익산시, ‘이상한 감빵생활 시즌2’ 사전예약 접수

익산시 교도소세트장에서 진행하는 1박 2일 이색캠핑이 지난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올해 다시 찾아왔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22~23일 교도소세트장에서 진행되는 ‘이상한 감빵생활 시즌2 미니캠핑 IN 이상한교도소’ 사전접수를 오는 5일 시작한다.

미니캠핑 행사는 이상한교도소라는 이름답게 DI와 함께하는 이상한 가족클럽, 가족작가지방, 가족명랑운동회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교도소세트장이 문을 닫는 18시 이후에 캠핑 참여자들만 남아 이뤄지는 캠프파이어 등은 관광지에서 쉽

게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사전접수는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구글폼(forms.gle/CdpmMXoXKJqYzs99)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대표 관광지인 교도소세트장에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며 “다시 불러 오고 싶은 도시 익산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의 교도소세트장은 영화와 드라마, 뮤직비디오 등의 촬영지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16만 5천여 명이 다녀간 인기 관광지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